

SK에너지, 2차전지로 세종시 진출?

SK그룹, EV용 리튬이온전지 공장 건설 가능성 ... 입주설 모락모락

SK에너지가 세종시에서 2차전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SK그룹은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면 상용화를 앞둔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EV)용 리튬이온전지 공장 등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는 청주산업단지에서 리튬이온전지 1, 2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증평공장의 시운전이 끝나면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증평공장에 이어 추가 공장을 도내에 유치하려던 충청북도는 SK에너지의 발언에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북도 투자 유치과의 한 관계자는 “SK가 충청북도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혔던 것은 아니지만, 충청북도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신수종 분야에 타격을 두고 투자유치 사업을 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공장은 우리의 유치 전략과 중복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청북도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언론 보도 단계라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기능을 빼오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7>